

참고 4

세계 최고 출력 100mW급 UV-C LED (LG이노텍)

배 경

- 자외선 살균 소독은 수은 램프로 이루어짐. 수은 유출에 따른 환경 오염 및 세계적인 수은 규제로 새로운 UV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
- UV LED는 수은 유출의 위험성이 없고 무선 컨트롤이 가능한 광학 반도체 소자로 높은 제조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


	
UV 램프	UV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주요내용

-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100mW UV-C LED 홍보
 - 고출력 UV LED를 제조 가능한 회사는 한국과 일본에 3~4개사만 존재
- 100mW 출력 확보(2017.10월)는 업계의 예상보다 2년이상 빠른 결과로, 향후 수처리 분야에 UV-C LED 적용시기를 크게 앞당김
 - 국내외 업계 최고의 살균 성능을 보유한 LED로써, 일반적으로 가전에 적용되는 제품의 50배에 달하는 출력

향후 계획

- 국내외 물 관련 기업과 함께 기술 독창성 확보를 위해 상생 협력
 - ※ 물산업 지식연구회('18. 1. 30) 등 경북 물기업 공동 개발 추진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3. 20(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작 성 자	과 장	남 기 주		
			사무관	이정호	주무관	권순철
		연 락 처	054-880-3550			

경북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 황산 취급 영세사업장 9개소 등 올해 40개소 시설개선 -

경상북도는 20일(화) 영남대학교 로봇관 대회의실에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 7개 시·군*,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및 민간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7개 시·군(사업장수, 사업비) : 경주(5개소, 167백만원), 김천(10개소, 333백만원), 구미(6개소, 200백만원), 영천(7개소, 233백만원), 경산(4개소, 133백만원), 청도(5개소, 167백만원), 칠곡(3개소, 100백만원)

경북도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를 우선 선정(중소기업 1순위, 중견기업 2순위), 7개 시·군, 40개 사업장에 13억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도는 4~6월에 사업장 현지조사, 정밀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7~11월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4년간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사업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한다.

시설개선 사업은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14년 구미·포항 공단지역 25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3개시군 총 165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주요시설 개선내용은 방류벽, 유출방지턱 등 사고예방시설 개선, 노후 탱크 배관 및 펌프 교체, 유출 경보시설 및 CCTV 보안시설 확충 등으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의 현장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한다.

김진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화학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실효적 수습·대응체계를 정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3. 20(화)】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작 성 자	과 장	김 정 수		
			사무관	이성언	주무관	유기권
		연 락 처	054-880-2534			

경북도, 대설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제설대비에 총력 **- 제설 사전준비 완료,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 -**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우리 도내 경북 북동산지, 영양평지, 봉화평지, 청송, 김천, 칠곡, 성주, 고령 일대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20일(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폭설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예상적설 : 경북북동산지 5~20cm, 경상내륙 : 3~10cm, 그 외 1~5cm

경북도는 우선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여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도로관리와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하여 23개 시·군과 함께 제설장비 총 2,491대(전문제설차량 13, 덤프 164, 굴삭기 59, 트랙터 등 2,255)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3,072톤, 공무원·유관기관자율방재단 등 인력 80천명을 확보하였으며, 경찰서·군부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제설 취약구간(고갯길 등 157개소)은 특별 관리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전진기지에 장비·인력·자재를 현장 배치 운영(39개소)하며, 도내 상습결빙구간 18개소에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했다.

경북도는 이번 눈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물 보수·보강 등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3.8일 발생한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